



여교사 남중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입장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0년 10월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다. 바로 30대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성관계 사건이다. 그런데 그 사건의 최고 절정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진짜로 사랑했을 뿐이라고 밝혀진 점이다. 보통의 사건은 교사의 성폭행이거나, 그 어떤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의 큰 정점인 것이다. 그러니 법적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는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분노한 많은 네티즌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여교사가 처벌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이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많은 세상인지라, 이 사건 역시 그 어떤 반성을 해보기도 전에 어느새 우리에게 잊혀 지나갔다.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성이라는 것은 낯설기만 한 것일까? 하지만 지나간 문제를 되짚어보는 일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실 이 사건을 두고 사회의 반응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낭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없지 않다. 20살 차이가 나는 여교사와 남학생의 사랑을 마치 한 편의 영화에 나오는 사랑처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금기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오히려 숭고하게 여기고, 부러워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스토리 중의 하나이다. 영화 속에서 신분과 나이, 그리고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은 매우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그려지기 마련이다. 오히려 영화는 그 문제의 사랑에 손가락질 하는 이들을 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감독의 시선은 곧 관객의 시선으로 내면화된다. 어느새 우리는 법과 질서보다 낭만을 소중히 여기는 낭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미디어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해체시킨다.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보다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것을 더 요구한다. 물론 그 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억압된 사회였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함도 깨닫는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 사회의 질서에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인간의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거기에 어떤 경계선 없이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세상은 온통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파멸되고 말 것이다. 모든 질서를 부정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끝을 비참하게 맞이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임을 읽을 수 있다. 그 분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이 따라야 할 질서와 규율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족쇄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법과 규율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글. 박명호(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